

보도시점 2024. 5. 27.(월) 14:00 / 배포 2024. 5. 27.(월) 08:30

생성형 AI 시대의 경쟁정책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와 OECD 간 최초의 공동 행사 -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4. 5. 27.(월) 13:00~18:10
- 장 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OECD
- 주 제 : **생성형 AI와 경쟁정책**
 - ①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 ②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이슈와 전략
 - ③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AI의 경쟁 보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생성형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오늘 오후 1시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정위가 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각 기관의 고위급,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AI 정책보고서에 대하여 언급하며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사무차장은 “OECD는 AI와 경쟁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서 “OECD는 다양한 회의, 보고서 및 정책 지침을 통해 AI가 시장 역학 및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당국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다음 달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주제로 ‘AI, 데이터와 경쟁’이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AI와 경쟁 간 상호 작용’이 경쟁위원회의 핵심 분야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술(AI)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려는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프레데릭 제니(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생성형 AI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 상호 운용성, 수직결합, 자사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프레데릭 제니 의장은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성형 AI와 연계된 각종 이슈를 조정할 수 있는 경쟁 주창(Advocac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3부로 나뉘어진 컨퍼런스의 첫 번째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n the

Generative AI supply chain)’을 주제로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하여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현 공정위 시장 감시정책과장, 유스케 다카하라(Yusuke Takahara)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두 번째 부문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 (Competition Issues and Strategies related to Data in AI models)’을 주제로 AI, 특히 기반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방안 및 경쟁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오리 슈바르츠(Ori Schwartz)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기조연설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ion)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윌리엄 코바식(William Kovacic)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Adaptable Platforms for Platform Regulation)’을 주제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당국에 필요한 역량 및 능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 (Ensuring Competition in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AI)’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하여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립 OECD 경쟁분과 전문관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 졌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최근 AI 시장의 급속한 발전이 제시하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쟁당국들이 각 기관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

하는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OECD와 함께 여러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늘 컨퍼런스 논의를 참고하여 앞으로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주시하면서 급변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OECD 공동학술대회 개요
2. 공정거래위원장 개회사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현 (044-200-4327)
		담당자	서기관	김하리 (044-200-4329)
			사무관	전혜준 (044-200-4330)
			조사관	임연수 (044-200-4333)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OECD 공동 컨퍼런스 개요

□ (일시·장소) 2024. 5. 27(월) 13:00~18:10,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 (주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Generative AI and Competition Policy)

<컨퍼런스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00~13:20	<개회사 및 인사말씀>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 • 신영수 경쟁법학회장, 전현배 산업조직학회장
13:20~13:25	<사진촬영>
13:25~13:55	<기조연설> • 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
14:00~15:20	<Part 1>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n the Generative AI supply chain) • 사회 : 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 • 발표 :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현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Yusuke Takahara 일본 공취위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15:30~16:40	<Part 2>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 (Competition Issues and Strategies related to Data in AI models) • 사회 :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Ori Schwartz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40~17:00	<기조연설> • William Kovacic 조지워싱턴대 교수(前 미국 FTC 위원장)
17:05~18:05	<Part 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 (Ensuring Competition in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AI) • 사회 :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 : 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림 OECD 경쟁분과 전문관
18:05~18:10	<폐회사>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1. 인사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정위와 OECD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님,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OECD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멀리에서 와주신 前 미국 FTC 위원장이셨던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한국경쟁법학회 신영수 학회장님,
한국산업조직학회 전현배 학회장님과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실
사회자 및 발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 공정위와 OECD의 협력관계

오늘 행사는 공정위와 OECD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최초의 컨퍼런스로서
한국에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OECD는 전 세계 경쟁정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쟁정책 분야의 심도 깊은 연구와
경쟁 주창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OECD의 노력과 성과를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AI를 포함한 많은 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공정위의 상임위원 등은
2001년 이후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에 참여하고 있고
공정위는 한국정책센터(KPC)를 통해서도 OECD와 협력해온바,
앞으로도 공정위와 OECD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3. AI와 경쟁정책의 중요성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공개 이후 AI를 응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이는 산업계, 시장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창출, 효율성 제고 등 AI의 긍정적 영향의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문제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시장 내에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며, AI 관련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 또한 제한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OECD는 AI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바로 2주 전 OECD는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에서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웰빙을 증진시키며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다고 평가하는 한편,

동시에 AI는 신뢰, 공정성, 사생활, 안전, 책임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AI 시장에서

새로운 규범 마련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 이후

AI 등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대 원칙을 토대로 정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공정위 역시 AI 시장연구 TF를 구성해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오늘과 같이 국제기구와의 논의도 적극 참여하여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마무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공정위-OECD 공동 컨퍼런스가
다가올 AI 시대의 경쟁정책 수립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정청하고
혁신과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OECD 관계자 여러분들,
각 세션의 사회자와 토론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컨퍼런스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님,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OECD 관제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 등
각 세션에서 사회,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되었듯이,
최근 AI 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전세계 경쟁당국에게
이 산업의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마련하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쟁당국들이 각 기관의 역할을 다할뿐만 아니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함께
여러 경쟁당국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그 기회 중 하나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AI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경쟁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금일 컨퍼런스의 논의를 참고하여
AI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OECD와 함께
여러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저는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